

MZ세대 몸짱 '열풍'...헬스장 모처럼 '훈풍'

'운동 인증샷'·'바디프로필' 촬영 유행에 실내스포츠업 활기 2월 광주 헬스클럽 사업자 329개로 2년 사이 38.24% 늘어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차평동 광주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 입구에 나타난 젊은이들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복색이는 시를 20대로 보이는 두 명의 청년은 등 뒤에 150cm 크기의 입간판을 짊어지고 있었다. 간판에는 새로 문을 연 헬스클럽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두 청년은 큰 소리로 "헬스장을 오픈했다"고 외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들을 건넸다.

전단지에는 신규 오픈을 기념해 한 달 이용요금을 평균 2만원 대로 제공하는 등 할인한다는 내용과 '24시간 운영', '최신식 시설' 등 홍보문구가 가득했다.

최근 문을 연 이 헬스장은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길거리까지 나와 홍보에 나섰다. 당장 상무역을 기점으로 반경 500m 안에 약 10개의 헬스장이 영업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왜 이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알만했다.

MZ세대의 큰 관심 속에 실내스포츠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어 젊은층에서도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운동 인증샷'과 '바디프로필'도 MZ세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국제통계기구에 따르면 광주지역 헬스클럽

사업자는 지난해 2월 289개에서 올 2월 329개로 1년 새 13.84%(40개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38개)과 비교해보면 38.24%나 늘어난 것이다. 필라테스와 크로스핏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 수도 268개(2021년)→292개(2022년)→310개(2023년)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몸을 가꿔 사진으로 남기는 '바디프로필' 촬영도 MZ세대 내에서 유행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만 찍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바디프로필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바디프로필 1회 촬영에 소요되는 금액은 50만원 안팎이다. 그럼에도 예약만 수개월이 걸리는 스튜디오도 있다. 당장 광주시 광산구의 한 바디프로필 스튜디오는 오는 8월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직장인 이혜라(여·29)씨도 다음 주 바디프로필 촬영을 계획 중이다. 이씨는 "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웨이트트레이닝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바디프로필 촬영에도 욕심이 났다"면서 "주변에는 바디프로필만 맡기는 5차레 이상 촬영한 친구들도 있다.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의 이용 통계만 보더라도 MZ세대들의 '자기 관리'에 관련한 이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상반기 주요 운동 영역별 MZ세대의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온라인 PT가 373%, 테니스장이 336%, 실내외 골프장이 202%, 스포츠센터가 150% 늘었다.

신한카드에는 "MZ세대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플레이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챙기는 MZ세대에서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운동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용, 체형 관리, 마사지 등과 같이 자신을 위해 선물을 주는 셀프케어도 MZ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헬스장은 없는 동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을 비롯해 신식 기구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가하면, '여성 전용', '24시간 운영' 등 다양한 특장점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지원금 전달

비장애 형제 심리치료 등 지원

효성은 지난 17일 푸르메재단 측에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 사업지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효성의 후원금은 저소득층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재활치료, 장애 어린이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료, 효성 임직원 가족과의 동반 가족 여행, 가족 초청 음악회 등에 사용된다.

2013년부터 효성은 장애 어린이와 가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성장기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활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장애 형제로 인해 가족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어린이의 비장애 형제에게는 교육비와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또 2015년부터는 효성 임직원 가족과 장애 어린이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 가정 구성원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다.



한편, 효성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 제작을 후원하고 있으며, 발달 장애 어린이 오케스트라 온누리사랑챔버에도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꾸준히 전달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경총, 19일 1604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윤영석 광주국제청장 강연

광주경제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9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힐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 에서 160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영석(사진) 광주지방국제청장이 강연자로 나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석 청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제정보화관리관, 서울청 송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윤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국제청의 기능과 역할 ▲성실납세 문화 조성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절세법 ▲기업승계 지원 제도 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한편 한국기록원으로 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정받은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회를 시작한 이후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 중이다. 지역 기업 CEO와 지역민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공대-대구교육청 글로벌 인재양성 협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지난 17일 대구시교육청과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연구와 자문 ▲미래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활용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삶을 주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



구광역시 학생의 미래역량교육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은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사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순천정원박람회 금토일 운영

26일부터 하루 4차례

금토일은 오는 26일부터 광주~순천정원박람회장 노선을 신규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개장한 개장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가장 40일만에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황을 이루면서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금토일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은 별도의 환승 없이 박람회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광주~순천만정원박람회장 노선은 매주 금·토·일 당일 4회 운행한다.

광주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까지 가는 버스는 광주발 오전 8시35분, 9시5분, 11시5분, 오후 3시35분이다. 소요시간은 1시간 35분이다.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는 오전 10시55분, 오후 1시35분, 4시15분, 5시35분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해당 구간 이용 요금은 1만1100원이며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서문주차장에 정차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신보-경북신보 고향사랑 상호 기부

영·호남 상생화합·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지난 17일 도청 귀빈실에서 경북신보보증재단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세환 경북신보보증재단 이사장, 정양수 전남신보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의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시작으로 영·호남 상생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참을 위해 전남·경북신보보증재단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남신보보증재단이 경상북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이은 상호

기부다.

양 재단의 상호기부금에 의해 영·호남 소통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e음(lovegohyang.go.kr) 시스템이나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515.40(+20.74)
코스닥	835.89(+1.70)
금리(국고채 3년)	3.300(+0.026)
환율(USD)	1334.20(-3.00)